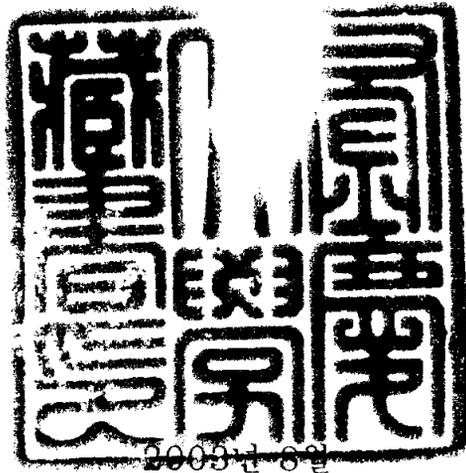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수동문 결정의 기능적 요인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한 수 영

한수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6월 20일

주심 문학박사 정해룡



위원 언어학박사 박순혁



위원 언어학박사 김은일



<제 목 목 차>

영 문 초 록	iv
제 1장 서 론	1
제 2장 이론적 배경	
2.1 유생성 위계	3
2.2 인칭 위계	5
2.3 개별성 위계	6
2.4 한정성 위계	8
2.5 화제성 위계	10
제 3장 언어 자료 및 연구 방법	
3.1 언어 자료	13
3.2 연구 방법	14
제 4장 결과 및 논의	
4.1 결과	17
4.1.1 유생성 위계	17
4.1.1.1 사람>동물·식물·무생물	20
4.1.1.2 사람>추상명사	21
4.1.1.3 피동작주가 사람이 아닌 경우	22
4.1.2 인칭 위계	23
4.1.2.1 1인칭>3인칭	25
4.1.2.2 2인칭>3인칭	26

4.1.3 개별성 위계	27
4.1.3.1 대명사>고유명사	29
4.1.3.2 대명사>보통명사	30
4.1.3.3 고유명사>보통명사	31
4.1.4 한정성 위계	32
4.1.5 화제성 위계	34
4.2 논의: 위계를 지키지 않은 수동문	37
4.2.1 유생성 위계	37
4.2.2 개별성 위계	39
4.2.3 한정성 위계	41
4.2.4 화제성 위계	43
제 5장 결론 및 제언	45
참 고 문 헌	47

<표 목차>

<표1> 유생성 위계	19
<표2> 사람·동물·식물·무생물 사이의 위계	20
<표3> 사람-추상명사 사이의 위계	21
<표4> 피동작주가 사람이 아닌 경우의 위계	24
<표5> 인칭 위계	24
<표6> 1인칭-3인칭 사이의 위계	25
<표7> 2인칭-3인칭 사이의 위계	26
<표8> 개별성 위계	28
<표9> 대명사-고유명사 사이의 위계	29
<표10> 대명사-보통명사 사이의 위계	30
<표11> 고유명사-보통명사 사이의 위계	31
<표12> 한정성 위계(한정-부정 사이의 위계)	33
<표13> 화제성 위계(화제-비화제 사이의 위계)	36
<표14> 유생성 위계를 어기게 만든 요인 분포표	38
<표15> 개별성 위계를 어기게 만든 요인 분포표	40
<표16> 한정성 위계를 어기게 만든 요인 분포표	42
<표17> 화제성 위계를 어기게 만든 요인 분포표	43

Functional Factors Of The Choice Of Passives

Su-young Ha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functional factors by which passives are chosen over actives. A passive sentence in English is not an automatically transformed counterpart of an active one. It is an alternative realization of the hierarchical relation between the agent and patient.

Many linguists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a hierarchy which is related to a subject position. They predict that a participant on the higher position of the hierarchy will be likely to fall on the subject position.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a passive construction may be employed by this hierarchical property between the agent and patient. In other words, in a passive sentence, the patient is higher than the agent in the hierarchy which decides the subject position, so the patient occupies the subject position, and finally a passive sentence is formed to describe a transitive event.

To argue this hypothesis, we analyze passive constructions in texts using the tools based on five hierarchies. The five hierarchies are The Animacy

Scale, The Hierarchy of Persons, The Individuation Scale, The Hierarchy of Definiteness, and The Hierarchy of Topicality. The results of our analyses show that these five hierarchies have influences on constructing passives in English. And these five hierarchies tend to have the same patterns in hierarchical property between the agent and patient. For example, a patient on the higher hierarchical position of the General Scale of Animacy has the same tendency in the rest of the four hierarchies. Especially in a case when the five hierarchical relations between the agent and patient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the Hierarchy of Topicality has a strong effect on forming passives.

Understanding of these five hierarchies related to the active-passive alternations would help Korean learners avoid making errors in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In explaining the active-passive alternations to students, English teachers should consider the discourse unit related to the topic beyond the sentence unit.

제 1장 서론

영어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타동적 사건을 기술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의 다른 표현방법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능동태와 수동태가 이에 해당된다. Jespersen(1933:120)은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능동과 수동의 두 가지 방법으로 거의 동일한 생각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의 (1)의 예문을 살펴보자. (1a, 1b)는 John이라는 사람이 공을 찬 하나의 동일 사건에 대해 각각 능동태와 수동태로 표현된 문장이다.

- (1) a. John kicked the ball.
- b. The ball was kicked by John.

(1)에서 알 수 있듯이 능동과 수동의 차이는 본질적인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다만 위의 예를 통해 능동과 수동이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에 있어서의 역할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동문의 주어는 행위자(Agent)¹⁾가 되고 목적어는 피동작주(Patient)²⁾가 되며, 반대로 수동문의 주어는 피동작주(Patient)가 되고 목적어는 by를 수반한 행위자(Agent)가 된다.

Givón(1979:57)은 능동과 수동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일상 대화나 텍스트에서 수동문보다 능동문이 훨씬 많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능동과 수동의 비율이 학술문(능동-82%,수동-18%), 소설(능동-91%,수동-9%), 뉴

1) Givón(1994)은 전형적인 타동절에서 그 사건을 시작하고 사건에 현저한 원인이 되어서 책임성이 있는 대상을 '행위자(Agent)'라고 하였다.

2) Givón(1994)은 전형적인 타동절에서 사건의 현저한 결과가 되어 비의도적·비능동적·비통제적인 대상을 '피동작주(Patient)'라고 하였다.

스(능동-92%,수동-8%), 스포츠(능동-96%,수동4%)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는 능동과 수동이 같은 사건을 표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능동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말이라는 것이 행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다면 담화상 존재하는 수동문은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일까?

본 논문의 목적은 동일한 타동적 내용을 능동과 수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왜 능동문이 아닌 수동문이 사용되었는지를, 한 수동문 내에서의 행위자와 피동작주 사이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Yamamoto, Langacker, Foley and Van Valin, Suren, Givón 등의 학자들은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데 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대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자들이 제시한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성은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동일 사건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행위자와 피동작주 사이에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성이 수동문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수동문이 행위자와 피동작주 사이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계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학자들이 제시한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위계 이론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언어 자료와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유생성·인칭·개별성·한정성·화제성 위계에 따라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계를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으로서 요약 을 하고 교육적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다. 이 장에서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Yamamoto(1999), Langacker(1991), Foley and Van Valin(1985), Seuren(1985), Givón(1984b)이 제시한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위계는 각각 유생성 위계, 인칭 위계, 개별성 위계, 한정성 위계, 화제성 위계이다.

2.1 유생성 위계(The Animacy Scale)

유생성(animacy)이란 생명의 존재여부를 일컫는 말로서 생명이 있는 것은 ‘생물’이라고 하고 생명이 없는 것은 ‘무생물’이라고 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생물은 무생물보다 유생성 위계에서 상위를 차지하여 생물이 무생물보다 한 문장 내에서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위계가 더 높다.

Locke(1694)와 Fowler(1977:16-17)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짓는 의미적 자질로 ‘운동성(locomotion)’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거나 변화하는 능력을 ‘운동성’이라고 설명하고 생물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무생물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식물은 자라고 꽃을 피우는 활동을 하지만 운동이 없으므로 전형적인 생물로서 인지될 수 없다. 그리고 아메바와 같이 육안이 아닌 현미경을 통

해 볼 수 있는 개체도 운동을 하더라도 생물로서 인지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과 너무 동떨어진 영역에 속해 있을뿐더러 직접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개체이므로 '유정성(sentiency)'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정성이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생물이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의미적 자질로 작용한다(김소영, 2002).

Yamamoto(1999)는 이렇게 생물과 무생물로 나뉘지는 유생성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유생성 위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의 위계는 생물과 무생물로 나뉘지는 전형적인 유생성 개념에 대해 생물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람 - 동물- 식물'로 구분하고, 기존의 무생물에 해당하는 개념도 생명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대상인 '무생물'과 인간과 너무 동떨어진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인 '추상명사'로 세분화하였다.

(2) 유생성 위계

사람 > 동물 > 식물 > 무생물 > 추상명사

Yamamoto의 이러한 구분은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인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는 상위에 있는 것일수록 한 문장 내에서 주어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인간(사람)도 '동물'의 범주에 속하지만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인간이 '동물'보다 더 높은 위계를 차지하게 된다. 인간이 생물의 여러 위계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고 특권을 지닌 존재임을 가정하고 있다.

Yamamoto의 위계 이론과 관련해서 Lakoff(1987)도 유생성이 정도(gradience)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진다는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한 범주 안에서도 핵심 구성 성분이 있고 주변적인 구성 성분이 있는데, 생물 내에서는 좀 더 생물적이

라 할 수 있는 개체가 있고 좀 더 주변적이라 할 수 있는 개체가 있다고 하였다.

2.2 인칭 위계(The Hierarchy of Persons)

Langacker(1991)는 앞에서 제시한 유생성 위계를 ‘발화역할(speech roles)’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하여 아래 (3)과 같은 인칭 위계를 제시하였다.

(3) 인칭 위계

1인칭 > 2인칭 > 3인칭

인칭 위계에서는 인간의 범주 내에서 1인칭 화자(speaker), 2인칭 청자(addressee), 그리고 3인칭(others)인 제삼자가 발화역할(speech role)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3)에서 화자는 인칭 위계 내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청자, 그리고 제삼자 순으로 배열된다.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인칭에 있어서의 구분은 ‘감정이입(Foley and Van Valin, 1985)’에 의한 정도 차이 때문이다. 인칭 위계를 감정이입 위계(empathy hierarchy)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감정이입이 많이 될수록 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계성이 높아지는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지닌 화자는 발화행위(speech act)에서 자신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서 청자에 비해 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계가 높아진다. 제삼자는 발화 참여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됨으로

발화 참여자인 청자에 비해서 감정이입의 정도가 낮고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도 더 낮아진다.

인칭 위계는 지시성 즉 '직접성(directness)'과도 관련이 있다. 본질적으로 화자인 1인칭과 청자인 2인칭은 직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두 인칭이 발화사건에 참여자로서 직접적으로 지칭되기 때문이다(Lyons, 1977:848 & Anderson and Keenan, 1985:259). 이에 반해, 3인칭은 발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발화 영역 내에서 영향을 받는 방관자(bystander)로 간주된다(Leech, 1983:131). 3인칭이 발화 상황에서 지칭이 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지시성이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1, 2인칭에 비해서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는 낮다(Anderson and Keenan, 1985:261 & Halliday and Hasan, 1976:48-51). 다음의 (4)를 살펴보자.

(4) A : Do you know Mike?

B : Yes, he is my friend.

여기서 he는 발화상황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he에 대한 직접적인 지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삼자로 간주되어진다. 3인칭은 1, 2인칭과는 달리 담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1, 2인칭에 비해 직접성의 정도가 낮다.

2.3 개별성 위계(The Individuation Scale)

Foley and Van Valin(1985:288)은 명사적 표현들의 위계를 아래 (5)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를 개별성 위계라고 한다. 개별성 위계는 한 개체가

얼마나 한정적(limited)이고 식별 가능한지(identifiable)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5) 개별성 위계

화자/청자 > 제삼자 > 사람고유명사 > 사람보통명사 >
다른생물명사 > 무생물명사

(5)에서 화자, 청자 그리고 제삼자는 인칭대명사라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개별성 위계는 인칭대명사(pronoun), 사람고유명사(human proper nouns), 보통명사구(common noun phrases)사이의 위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5)를 다시 표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인칭)대명사 > (사람)고유명사 > 보통명사

우선 인칭대명사는 개별성 위계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개별성이 높으므로 한 문장 내에서 주어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가장 높은 언어적 표현인 것이다. Mühlhäusler and Harre(1990)는 인칭대명사를 '본질적 인간(bare human being)'으로 표현하고, 이 지시어는 가장 기본적인이고 중심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칭대명사가 개별성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본질적 성격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인칭대명사 다음으로는 사람고유명사가 사람보통명사구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사적 표현들의 위계를 다음의 (7)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7) a. Can I speak to *John*, please?

b. Can I speak to the *junior bursar*, please?

(7a)에서는 John이라는 이름이 직접 불려진 반면, (7b)에서는 그의 사회적 지위 또는 역할인 the junior bursar로 불렸다. John은 그의 역할로 불림으로써 그가 일하는 곳을 대표하는 비인간화(dehumanised), 제도화(institutionalised)된 개체가 된다. 이로 인하여 I와 the junior bursar와의 심리적인 거리는 I와 John과의 심리적인 거리보다 더 멀어지게 됨으로 the junior bursar은 John보다 개별성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보통명사구는 사람고유명사보다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가 낮다(김소영, 2002).

(6)에서 (5)의 사람보통명사구와 다른생물명사 그리고 무생물명사를 한꺼번에 보통명사로 묶어서 나타낸 이유는 어떤 명사를 사람, 생물, 무생물로 구분하는 구분법은 앞서서 살펴본 유생성 위계에서 살펴본 구분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6)은 (2)의 유생성 위계와는 중복됨이 없이 순수한 명사적 표현 위계로서만 살펴본 개별성 위계임을 밝힌다.

2.4 한정성 위계(The Hierarchy of Definiteness)

Seuren(1985)은 한정성(definiteness)이 부정성(indefiniteness)보다 주어를 차지할 수 있는 위계도에서 상위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성이란 화자의 의식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시물에 대해서 청자도 그 지시물을 이미 알고 있거나 동일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정성 위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8) 한정성 > 부정성

한정성과 부정성은 화자의 의식 속에 청자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정성으로 나타나고, 청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부정성으로 나타난다. 한정성은 정관사 the를 사용하거나 this, that 와 같은 지시사로 표시한다. 고유명사나 대명사 역시 특정한 지시물에 대한 직접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한정성이 있다. Chafe(1976)에 따르면 한정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유일한 것 :

ex) the sun, the moon, the sky...

② 특정한 문맥 속에서 두드러진 것 :

ex) In my classroom, I can talk about *the blackboard*.

③ 특별한 집단에 소속해 있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

ex) Did you feed *the dog*?

④ 담화상 이전에 언급된 것 :

ex) I have a pen. *The pen* is my mother's.

⑤ 수식어구로 한정된 것 :

ex) This morning, I ran into *the mechanic* with the red beard.

다음의 예(9)는 한정성과 부정성이 문장 내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9) a. The cat was chased by a dog.
- b. The cat was chased by the dog.
- c. *A cat was chased by the dog.

한정성이 부정성보다 위계도가 높기 때문에 (9a, 9b)처럼 위계도가 높거나 동일한 요소가 이것보다 낮거나 동일한 요소를 선행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9c)처럼 부정성을 지닌 위계가 낮은 요소가 위계가 높은 요소를 선행하면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된다(Seuren, 1985:380).

2.5 화제성 위계(The Hierarchy of Topicality)

Givón(1984b:566)은 화제인 것이 화제가 아닌 것보다 문장의 주어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위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 (10) 화제 > 비화제³⁾

신계성(1987)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화제는 문장 전체의 내용과 관련되어야

3) 여기서 비화제라는 것은 not-topical 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덜 화제적이라는 less-topical 이라는 상대적 개념이다.

하고, 화자의 관심 및 초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예측 가능한 주어진 정보로서 청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 (11)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가 화제가 되어 주어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장의 예이다.

- (11) a. Mary turned the light on.
b. The light was turned on by Mary.

(11a)는 ‘What did Mary do?’의 응답으로서 구정보인 ‘Mary’를 주어로 화제화한 문장이고, (11b)는 ‘What happened to the light?’의 응답으로서 구정보인 ‘the light’를 주어로 하여 화제화한 문장이다.

화제성 측정의 방법으로는 언어학자의 직관에 의한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과 텍스트상의 토큰을 계량화하는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있다. 본 논문은 화제 측정의 방법으로 정량분석법의 한 방법인 Givón(1983a)이 제시한 분석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는 20절⁴⁾ 내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빈도수를 측정하여 대상 간의 화제성을 판별하였다. 다시 말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간에, 20절 내에서 더 많은 횟수를 차지하는 대상이 화제인 것으로 화제성을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계를 살펴보고 이 위계가 어떻게 더 세분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일반적 위계는 크게 생물과 무생물간의 위계인데 생물 내에서도 인간의 자기

4) 주어-동사가 나타나 있는 단문을 기준으로 함(단, 복문에서 등위절, 부사절은 각각 하나의 절로 취급함).

중심적인 관점에 의하여 인간과 동물, 식물, 무생물, 추상명사로 그 위계가 분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유생성 위계에 대해서 1, 2, 3인칭으로 구분되는 위계가 생기는데 이를 인칭 위계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시어 본질에 관한 위계로서 1, 2인칭은 3인칭에 비해서 직접적인 표현이면서 많은 감정이입을 수반하게 됨으로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위계가 높음을 알았다. 언어적 표현의 위계인 개별성 위계는 한 개체가 얼마나 식별가능하고 한정적인지에 관한 정도로서 명사적 표현의 위계를 말하는데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로 구분되었다. 한정성 위계는 화자가 언어를 사용할 때 청자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관련되며, 한정성 위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the, 지시대명사(this, that...), 고유명사, 대명사 등이 사용된 것이다. 화제성을 갖는 대상은 문장 전체의 내용과 관련되고 화자의 관심 및 초점의 대상이 되면서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예측 가능한 주어진 정보이다. 화제성 측정은 직관에 의한 방법과 정량화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은 정량화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위계들이 수동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텍스트에 나타난 수동문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3장 언어 자료 및 연구 방법

3.1 언어 자료

본 논문에서는 수동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위계 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자료 1> : Laraine E. Flemming. *Reading for Thinking*(2000, 3rd)

<자료 2> : Jack Canfield and Mark Victor Hansen.

① *Chicken Soup for the Soul*(1995, 2nd)

② *Chicken Soup for the Soul*(1996, 3rd)

<자료 1>은 미국 대학에서 교양영어 교재로 사용되는 교재 중 하나로, 다수의 논설문과 설명문 형식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2>는 수필 형식의 글로서 현재 출판된 다수의 시리즈 중 2, 3판을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이 두 형태의 글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대화체보다 서술체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글보다 수동태 추출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⁵⁾.

5) 이관화(1998:50-51)을 보면, 서술체(소설-8%,논문-39%)가 대화체(영화대본-4%)보다 수동구문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목적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한 문장의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위계 요인이 수동문 결정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텍스트상에 나타난 수동문에 대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 단계에 따라 수동문의 피동작주에 해당하는 '주어명사구'와 수동문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by+명사구'를 분석한다. 여기서 'by+명사구'는 전형적인 행위자를 나타내준다.

'by+명사구'는 보통 생략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⁶⁾이지만, 'by+명사구'가 나타난 것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행위자와 피동작주의 위계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이러한 위계성 차이가 수동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나타나지 않은 피동작주의 위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① 유생성 위계 : 사람 > 동물 > 식물 > 무생물 > 추상명사
- ② 인칭 위계 : 1인칭 > 2인칭 > 3인칭
- ③ 개별성 위계 : 대명사 > 고유명사 > 보통명사
- ④ 한정성 위계 : 한정성 > 부정성
- ⑤ 화제성 위계 : 화제성 > 비화제성

위와 같이 다섯 가지 위계 단계에 따라 수동구문 200개를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분석의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수동문은 제외했음을

6) 이란화(1998)에서 'by+명사구'를 생략하는 경우는 소설·영화대본-90%, 교과서-97%, 논문-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밝힌다.

① 'by+명사구'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12) a. She *was saddled*.

b. The poem's original author *was eventually discovered*.

② by 이외의 다른 전치사가 사용된 경우

(13) a. He *looked filled with* fatherly pride.

b. Shanon *got directly involved in* local fund-raisers.

c. All the corners *are covered with* thin right-angled black iron.

③ 주격관계대명사절 속에 나타난 수동형(주격관계대명사 생략절도 포함)

(14) a. The world's presented in a kaleidoscopic flux of impression
which has to *be organized by* our minds.

b. Great thoughts *uttered by* the wisest of souls will break the
shackles of fear that hold you in bondage.

④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속에 나타난 수동형

(15) If the trait *to be validated by* him shares aspects with other
measured traits, "specification" error variance will cause inter-trait
correlations to be spuriously high.

⑤ 지각동사 및 사역동사의 목적보어로 나타난 수동형

(16) a. I'll *get* things *started*.

b. We'd like to *have* them *wrapped*.

제 4장 결과 및 토의

수동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분석을 위해서 다섯 가지 위계에 근거하여 텍스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섯 가지 위계는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유생성 위계(사람>동물>식물>무생물>추상명사), 인칭 위계(1인칭>2인칭>3인칭), 개별성 위계(대명사>고유명사>보통명사), 한정성 위계(한정성>부정성), 화제성 위계(화제성>비화제성)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위계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다. 분석대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개의 행위자구(by+agent)가 나타나 있는 수동구문을 대상으로 한다.

4.1 결과

4.1.1 유생성 위계

유생성 위계는 크게 생물과 무생물에 관한 위계인데, 본 논문은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사람-동물-식물-무생물-추상명사” 사이의 위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피동작주와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행위자의 유생성 위계를 구분해보자.

(17) 사람 > 무생물

He was told by the local chiropractic community. <자료2-②, p. 283>

(18) 사람 > 추상명사

We may be surprised, dismayed, and ultimately horrified by the consequences of its use. <자료1, p. 402>

(19) 동물 > 무생물

A family pet wouldn't be hit by a hunter's bullet. <자료1, p. 411>

(20) 추상명사 = 추상명사

Racial traits are really determined by culture and environment.
<자료1, p. 516>

(21) 동물 < 사람

Millions of sharks are killed each year by humans. <자료1, p. 404>

(22) 추상명사 < 사람

This story was shared with us by an anonymous caller during a radio talk show in Chicago. <자료2-①, p. 163>

(23) 무생물 < 사람

It had been given to her by a previous male client.
<자료2-①, p. 38>

위의 예문 (17-23)중에서 (17-20)의 수동문은 주어와 by-목적어 사이에 유생성 위계를 지켜서 주어 자리에 유생성 위계가 더 높거나 같은 대상이 나타나 있는 예문이며, (21-23)의 수동문은 주어와 by-목적어 사이에 유생성

위계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예문이다. 다음의 표는 200개의 수동문에 대한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유생성 위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1>

위계를 지킨 경우		위계를 지키지 못한 경우	
토큰	%	토큰	%
84	68%	40	32%

위의 표를 보면 200개의 수동구문 중 위계를 지킨 문장이 84개로 68%에 해당되며, 유생성 위계를 지키지 못한 문장이 40개로 32%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 표는 주어 자리에 나타난 피동작주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행위자의 위계가 같은 76개의 문장(7)을 제외한 수치이다. 피행위자와 행위자의 위계가 같은 문장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위계가 같은 두 대상은 유생성 위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문장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유생성 위계를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을 위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유생성 위계를 지킨 것을 중심으로 각각을 분류해 보면 총 10개의 표(8)가 나올 수 있지만, 토큰 수가 적은 경우에는 묶어서 표를 만들었음을 밝힌다.

7) 사람-사람인 구문 37개, 추상명사-추상명사인 구문 27개, 무생물-무생물인 구문 12개 제외.

8) 피동작주-행위자가 각각 사람-동물, 사람-식물, 사람-무생물, 사람-추상명사, 동물-식물, 동물-무생물, 동물-추상명사, 식물-무생물, 식물-추상명사, 무생물-추상명사 인 표 10개가 가능하다.

4.1.1.1 사람 > 동물 · 식물 · 무생물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위계가 각각 사람-동물, 사람-식물, 사람-무생물인 수동문과 그 반대인 경우 즉 피동작주와 행위자가 각각 동물-사람, 식물-사람, 무생물-사람인 수동문을 살펴보았다. 사람-동물, 사람-식물, 사람-무생물 사이의 위계성을 지킨 수동구문이 지키지 않은 수동구문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사람 > 동물 · 식물 · 무생물		동물 · 식물 · 무생물 < 사람	
토큰	%	토큰	%
29	63%	17	37%

위의 표를 보면 사람-동물, 사람-식물, 사람-무생물 사이의 위계성을 지킨 수동구문이 지키지 않은 수동구문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4) a. *The charioteers would be dragged repeatedly by runaway horses.* <자료1, p. 147>

b. *I am interviewed by the media.* <자료2-①, p. 264>

(24a)는 피동작주가 사람이고 행위자가 동물이다. 주어자리에 유생성 위계가 높은 사람이 왔으므로 위계를 지킨 문장이다. (24b)는 피동작주가 사람이고 행위자가 무생물인 구문이다. 주어자리에 유생성 위계가 높은 사람이 왔으므로 위계가 잘 지켜진 문장이라 하겠다.

4.1.1.2 사람 > 추상명사

200개의 수동문 중에서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사람-추상명사인 문장은 모두 44개였고 그 반대인 경우 즉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추상명사-사람인 문장은 모두 8개였다. 85%에 해당하는 44개의 문장은 주어자리에 사람을 두어 위계를 지키고 있었고 15%에 해당하는 8개의 문장은 주어자리에 추상명사를 두어 위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표3>

사람 > 추상명사		추상명사 < 사람	
토큰	%	토큰	%
44	85%	8	15%

위의 표를 보면 사람-추상명사 사이의 위계를 지킨 수동구문이 지키지 않은 수동구문보다 약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4.1.1.1에서 살펴보았던 사람-동물, 사람-식물, 사람-무생물 사이의 위계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 이것은 사람-추상명사 사이의 위계가 다른 위계(사람-동물, 사람-식물, 사람-무생물)보다 유생성 위계를 더 엄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자.

(25) *I was totally intimidated by the learning process.*

<자료2-①, p. 213>

(25)의 문장은 피동작주가 사람이고 행위자가 추상명사인 문장인데, 유생성

위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수동문을 형성하고 있다.

4.1.1.3 피동작주가 사람이 아닌 경우

이제 4.1.1.1과 4.1.1.2에서 살펴본 위계(사람-동물, 사람-식물, 사람-무생물, 사람-추상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계 즉, 피동작주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수동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시 말해 여기서는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동물-식물, 동물-무생물, 동물-추상명사, 식물-무생물, 식물-추상명사, 무생물-추상명사인 수동문과 그 반대에 해당하는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식물-동물, 무생물-동물, 추상명사-동물, 무생물-식물, 추상명사-식물, 추상명사-무생물인 수동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4>

- 동물 > 식물 · 무생물 · 추상명사	- 식물 · 무생물 · 추상명사 < 동물
- 식물 > 무생물 · 추상명사	- 무생물 · 추상명사 < 식물
- 무생물 > 추상명사	- 추상명사 < 무생물
토큰	%
11	42%
토큰	%
15	58%

위의 표를 보면 유생성 위계를 지키고 있는 수동문이 11개로 42%에 해당되며, 유생성 위계를 지키고 있지 않은 수동문이 15개로 58%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절반 이상이 유생성 위계를 따르고 있는 4.1.1.1이나 4.1.1.2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생

성 위계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위계(동물, 식물, 무생물, 추상명사)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1.2 인칭 위계

Langacker(1991:307)는 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계가 화자(1인칭) → 청자(2인칭) → 제삼자(3인칭) 순서라고 주장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칭 위계가 수동구문의 형성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예문을 통해서 수동문에서의 인칭 위계를 구분해보자.

(26) 1인칭 > 3인칭

My traveling companion and I were held up by a couple of toughs.

<자료2-①, p. 292>

(27) 2인칭 > 3인칭

You might be lifted by the continuing force of your sacrifice.

<자료2-①, p. 54>

(26, 27)는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인칭 위계에서 상위를 차지하여 주어자리에 나타난 경우에 해당하는 수동문이다. 이 두 문장에서 피동작주는 각각 1인칭과 2인칭으로서 행위자인 3인칭보다 인칭위계가 높다.

다음의 표는 200개의 수동문에 대한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인칭 위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5>

위계를 지킨 경우		위계를 지키지 못한 경우	
토큰	%	토큰	%
37	100%	0	0%

위의 표를 보면 200개의 수동구문 중 위계를 지킨 문장이 37개로 100%에 해당되며, 유생성 위계를 지키지 못한 문장은 발생하지 않아 0%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 표는 주어 자리에 나타난 피동작주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행위자의 위계가 같은 163개의 문장⁹⁾을 제외한 수치이다.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위계가 같은 문장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위계가 같은 두 대상은 인칭 위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수동문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인칭 위계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위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인칭 위계를 지킨 것을 중심으로 각각을 분류해 보면 총 3개의 표¹⁰⁾가 나올 수 있지만, 본 논문의 자료로 쓰인 200개의 수동문에는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1인칭-2인칭인 수동문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1인칭-2인칭인 수동문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본 논문의 자료로 쓰인 200개의 수동문이 대화체가 아닌 서술체에서 추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 모두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3인칭-3인칭인 수동문이었다.

10) 피동작주-행위자가 각각 1인칭-2인칭, 1인칭-3인칭, 2인칭-3인칭 인 3개의 표가 가능하다.

4.1.2.1 1인칭 > 3인칭

분석 결과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1인칭-3인칭인 수동문은 30개 문장이었고 그 반대의 경우, 즉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3인칭-1인칭으로 피동작주인 3인칭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동문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표6>

1인칭 > 3인칭		3인칭 < 1인칭	
토큰	%	토큰	%
30	100%	0	0%

위의 표를 보면 수동문에서 1인칭과 3인칭의 인칭 위계가 100% 지켜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8) *I was adopted by a poor, middle-aged couple, John and Mary Linkletter.*
 <자료 2-①, p. 292>

(28)의 예문을 보면 피동작주인 'I'는 1인칭이며 행위자인 'a poor couple, John and Mary Linkletter'는 3인칭이다. 주어 자리를 차지함에 있어서 1인칭이 3인칭보다 인칭위계에서 상위에 있으므로 (28)의 예문은 인칭위계를 잘 따르고 있는 수동문이라 하겠다.

4.1.2.2 2인칭 > 3인칭

분석 결과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2인칭-3인칭으로 2인칭이 주어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동문이 모두 7문장이었고,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3인칭-2인칭으로 3인칭이 주어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동문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표7>

2인칭 > 3인칭		3인칭 < 2인칭	
토큰	%	토큰	%
7	100%	0	0%

위의 표를 보면 2인칭-3인칭 사이의 위계성을 지키지 않은 문장은 발생하지 않고 인칭 위계성을 100%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9) *I was evaluated by internists, dermatologists, rheumatologists and infectious disease and pulmonary specialists.*

<자료2-②, p. 269>

(29)의 수동문에서 피동작주인 'I'는 1인칭이며, 행위자인 'internists, dermatologists, rheumatologists and infectious disease and pulmonary specialists'는 3인칭이다. 인칭 위계에서 보다 상위를 차지하는 피동작주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여 수동문을 형성하고 있다.

4.1.3 개별성 위계

개별성 위계는 한 개체가 얼마나 한정적이고 식별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는 대명사>고유명사>보통명사의 위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예문을 통해서 개별성 위계를 구분해보자.

(30) 대명사 > 보통명사

I was impressed only by *the tears*. <자료2-②, p. 204>

(31) 고유명사 > 보통명사

John Roebins was inspired by *an idea*. <자료2-②, P. 276>

(32) 보통명사 = 보통명사

Thomas Edison's laboratory was virtually destroyed by *fire*.
<자료2-②, p. 235>

(33) 보통명사 < 고유명사

The program will be administered by *the Foundation for Self-Esteem in Culver City, California*. <자료2-①, p. 316>

(30-32)는 개별성 위계에서 보다 상위를 차지하거나 위계가 같은 대상이 주어 자리에 나타나서 개별성 위계를 지키고 있는 문장이고, (33)은 개별성 위계에서 더 하위에 있는 대상이 주어 자리에 나타나서 개별성 위계를 지키지 않고 있는 문장이다. 위와 같이 200개의 수동문에 대하여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개별성 위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8>

위계를 지킨 경우		위계를 지키지 못한 경우	
토큰	%	토큰	%
89	89%	11	11%

위의 표를 보면 200개의 수동구문 중 개별성 위계를 지킨 문장이 89개로 89%에 해당되며, 개별성 위계를 지키지 못한 문장은 11개로 11%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 표는 주어 자리에 나타난 피동작주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행위자의 위계가 같은 100개의 문장¹¹⁾을 제외한 수치이다.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위계가 같은 문장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계가 같은 두 대상은 개별성 위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수동문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개별성 위계를 지키고 있는 위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개별성 위계를 지킨 것을 중심으로 각각을 분류해 보면 총 3개의 표¹²⁾가 나오게 된다.

11)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대명사-대명사(2개), 고유명사-고유명사(4개), 보통명사-보통명사(94개) 인 것 제외함.

12) 피동작주-행위자가 각각 대명사-고유명사, 대명사-일반명사, 고유명사-일반명사 인 3개의 표가 가능하다.

4.1.3.1 대명사 > 고유명사

대명사와 고유명사 사이의 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계는 대명사가 고유명사보다 더 상위에 있다. 수동문에서도 이 두 위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를 보자. 수동문에서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대명사-고유명사인 문장과 그 반대인 경우 즉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고유명사-대명사인 수동문을 살펴보았다.

<표9>

대명사 > 고유명사		고유명사 < 대명사	
토큰	%	토큰	%
4	100%	0	0%

위의 표를 보면 피동작주인 대명사와 행위자인 고유명사 간의 위계에서 더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명사가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수동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4) *I was awakened by Judith.* <자료 2-②, p. 53>

(34)의 수동문에서 피동작주는 ‘I’라는 대명사로 나타나있고, 행위자는 ‘Judith’라는 고유명사로 나타나 있다. 대명사와 고유명사 사이의 위계는 대명사가 더 상위를 차지하므로 더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피동작주인 대명사 ‘I’가 주어자리를 차지하면서 수동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4.1.3.2 대명사 > 보통명사

대명사와 보통명사 간에 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계는 대명사가 보통명사보다 더 상위에 있다.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대명사-보통명사인 수동문과 반대로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보통명사-대명사인 수동문을 비교해 보았다. 다음 표를 보자.

<표10>

대명사 > 보통명사		보통명사 < 대명사	
토큰	%	토큰	%
69	95%	4	5%

위의 표를 보면 수동문에서 대명사와 보통명사 사이의 위계를 지켜서 나타난 문장이 69개로 95%에 해당되고 위계를 지키지 않고 나타난 문장은 4개로 5%에 해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를 통해 대부분의 수동문이 대명사와 보통명사 사이의 위계를 지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35) *He* was approached by *a young woman*. <자료2-②, p. 237>

(35)의 수동문을 보면 피동작주는 ‘he’라는 대명사로 나타나 있고 행위자는 ‘a young woman’이라는 보통명사로 나타나 있다. 대명사인 피동작주와 보통명사인 행위자의 개별성 위계는 피동작주인 대명사가 더 상위에 있으므로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수동문을 형성하고 있다.

4.1.3.3 고유명사 > 보통명사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사이의 개별성 위계는 고유명사가 더 상위를 차지한다.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고유명사-보통명사인 수동문과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보통명사-고유명사인 수동문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를 보자.

<표11>

고유명사 > 보통명사		보통명사 < 고유명사	
토큰	%	토큰	%
16	70%	7	30%

위의 표를 보면 수동문에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사이의 개별성 위계를 70%에 해당하는 16개의 문장이 지키고 있고 30%에 해당하는 7개의 문장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동문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사이의 개별성 위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개별성 위계가 수동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 보자.

(36) *Franklin D. Roosevelt* was paralyzed by *polio*. <자료2-①, p. 255>

(36)의 수동문을 보면 피동작주인 ‘Franklin D. Roosevelt’는 고유명사이고 행위자인 ‘polio’는 보통명사이다.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중에서 개별성 위계로는 고유명사가 더 상위에 있으므로 피동작주이자 고유명사인 ‘Franklin D. Roosevelt’가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수동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4.1.4 한정성 위계

한정성 위계는 화자의 의식 속에 어떤 대상을 청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한정성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비한정성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성의 개념을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정과 비한정으로 분류하였다.

· 한정적 명사구 :

① 정관사, 지시형용사, 소유형용사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

② 특정 지시물에 대한 직접적 표현을 하고 있는 명사

ex) 고유명사, 대명사

다음의 예문을 통해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한정성과 비한정성을 구분해 보자.

(37) 한정 > 비한정

They are usually vastly outweighed by defenders.

<자료2-②, p. 102>

(38) 한정 > 비한정

He was hired by a restaurant.

<자료2-②, p. 23>

(39) 한정 = 한정

*She was told by the head instructor of the John Murray Anderson
Drama School.*

<자료2-①, p. 251>

(40) 비한정 < 한정

A word had not been spoken by her elderly friend.

<자료2-②, p. 47>

위의 예문에서 (37-39)은 한정성 위계를 지키고 있는 문장이고 (40)은 한정성 위계를 어기고 있는 문장이다. 200개의 수동문에 대하여 피동작주와 행위자에 대한 한정성 위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12>

위계를 지킨 경우 (한정 > 부정)		위계를 지키지 못한 경우 (부정 < 한정)	
토큰	%	토큰	%
56	81%	13	19%

위의 표를 보면 200개의 수동구문 중 한정성 위계를 지킨 문장이 56개로 81%에 해당되며, 한정성 위계를 지키지 못한 문장은 13개로 19%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 표는 주어 자리에 나타난 피동작주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행위자의 위계가 같은 141개의 문장¹³⁾을 제외한 수치이다.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위계가 같은 문장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계가 같은 두 대상은 한정성 위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수동문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1) *He had been visited by a former student.*

<자료2-①, p. 208>

13)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한정-한정(120개), 비한정-비한정(21개) 인 것 제외함.

(41)의 수동문에서 피동작주인 'I'는 대명사로 한정성을 가지며 행위자인 'a woman'은 비한정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 때 한정성 위계에서는 한정성을 가진 명사구가 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계에서 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한정성의 위계를 가지고 있는 피동작주인 'I'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여 수동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5 화제성 위계

화제성 위계라는 것은 화제성을 띄고 있는 명사구가 화제성을 띄고 있지 않는 명사구보다 주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화제라는 것은 텍스트 전체 내용과 관련이 되며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화제성 측정은 수동문이 속해 있는 단락 안에서 해당단어(피동작주와 행위자)가 언급된 횟수를 헤아려서 측정하였다. 한 단락 안에서 화제성 측정이 곤란한 것은 그 단락의 앞, 뒤 단락까지 범위(20절 내외)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화제성 측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42) The Supreme Court's definition came with its ruling on the suit that ①*Teresa Harris* filed against her former boss, 1)*Charles Hardy*. In 1987 ②*Harris* quit her job in despair because ③*she* felt ***she had been sexually harassed by Hardy***. According to ④*Harris*, 2)*Hardy* often asked ⑤*her*-and other female employees-to retrieve coins from the

front pockets of his pants. 3) *He* once asked ⑥ *Harris* to go with 4) *him* to a hotel room to negotiate her raise. And 5) *he* routinely made such remarks to ⑦ *her* as "⑧ *You're* a woman; what do ⑨ *you* know?" ⑩ *She* spent six years trying to convince judges that ⑪ *she* was sexually harassed in violation of federal law, but to no avail. The judges found Hardy's conduct not severe enough to "seriously affect her psychological well-being." But ⑫ *Harris* persisted, and final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exual harassment does not have to inflict "severe psychological injury" on the victim.

<자료1, P. 368>

(42)에서 수동문은 “She had been sexually harassed by Hardy.”로 나타나 있다. 이 수동문에서 피동작주는 ‘she(Harris)’이고 행위자는 ‘Hardy’이다. 수동문을 찾아 피동작주와 행위자를 구분하고 나면, 화제성이 피동작주와 행위자 중 어느 쪽이 더 높은가를 살펴보기 위해 한 단락 내에서(한 단락 안에서 측정이 어려우면 범위를 2-3단락까지 확대하기도 함) 피동작주와 행위자를 언급하는 단어들을 찾아 그 수를 헤아린다. 더 많이 언급된 것이 화제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단락에서 나타났듯이 피동작주인 ‘Harris’는 총 12번 언급되었고 행위자인 ‘Hardy’는 5번 언급되었으므로 ‘Harris’가 더 화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의 표를 보면 200개의 수동문에 대해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화제성과 비화제성을 측정한 결과를 알 수 있다.

<표13>

위계를 지킨 경우 (화제 > 비화제)		위계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화제 < 화제)	
토큰	%	토큰	%
165	90%	18	10%

위의 표를 보면 200개의 수동구문 중 화제성 위계를 지킨 문장이 165개로 90%에 해당되며, 화제성 위계를 지키지 못한 문장은 18개로 10%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 표는 주어 자리에 나타난 피동작주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행위자의 위계가 같은 17개의 문장¹⁴⁾을 제외한 수치이다.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위계가 같은 문장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계가 같은 두 대상은 화제성 위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수동문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나타났듯이 화제성 위계는 대부분의 수동문(90%)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위계에 근거하여 수동문의 피동작주와 행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수동문이 다섯 가지 위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생성 위계 68%, 인칭 위계 100%, 개별성 위계 89%, 한정성 위계 81%, 화제성 위계 90%). 이것은 이러한 다섯 가지 위계가 수동문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유생성 위계를 제외한 나머지 위계는 80%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대부분의 수동문에 있어서 유생성 위계가 높은 대상은 인칭 위계, 개별성 위계, 한정성 위계, 화제성 위계에서도 상위를 차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제 4.2에서는 앞장에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었던 위계를 지키지 않은

14) 피동작주-행위자의 관계가 주제-주제(1개), 비주제-비주제(16개) 인 것 제외함.

수동문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수동문은 다섯 가지 위계가 일치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위계에 따라서 수동문이 결정되는 것일까? 4.2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4.2 논의: 위계를 지키지 않은 수동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수동문이 각각의 위계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위계가 일치하지 않는 수동문도 나타났었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위계를 지키지 않고 있는 수동문을 중심으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4.2.1 유생성 위계

4.1.1의 표를 보면 유생성 위계를 지키지 않고 나타난 수동문이 모두 40개였다. 이들 수동문은 주어자리에 나타난 피동작주보다 목적어자리에 나타난 행위자가 유생성 위계에 있어서는 더 상위를 차지하는 문장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40개의 문장들은 만약 유생성 위계에 따른다면 행위자가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능동문을 구성해야함에도 다른 위계의 영향을 받아 수동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위계 요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서 수동문으로 나타난 것일까? 다음의 표는 유생성 위계를 어기면서까지 수동문으로 나타나게 만든 여러 가지 위계 요인들을 살펴본 표이다. 단, 40개의 문장에 대해서 위계별로 모두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표의

결과에는 한 문장에 대해서 중복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표14>

위계 종류 \ 위계성	피동작주 > 행위자
인칭위계	0 개
개별성 위계	0 개
한정성 위계	14 개
화제성 위계	34 개

위의 표는 유생성 위계를 어긴 40개의 문장들에 대해서 인칭위계, 개별성 위계, 한정성 위계, 화제성 위계를 모두 살펴본 결과이다. 인칭위계와 개별성 위계로 40개의 수동문을 각각 따져본 결과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인칭위계나 개별성 위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40개의 문장을 한정성 위계로 따져보았을 때는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위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이 14문장에 해당되었다. 또한 40개의 문장을 화제성 위계로 따져보았을 때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위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이 34개에 해당되었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생성 위계를 어긴 40개의 문장 모두를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대체로 한정성 위계나 화제성 위계가 높아서 수동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표를 통해 수동문 형성에 유생성 위계보다는 한정성 위계나 화제성 위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3) *These boxes were used by itinerant scribes.* <자료2-②, p. 29>

(43)의 문장에서 피동작주 'these boxes'는 무생물이고 행위자 'itinerant

scribes'는 사람이어서 유생성 위계로는 행위자가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위계가 더 높아서 능동문을 구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동문으로 나타나 있다. 이 문장은 한정성 위계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수동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피동작주 'these boxes'는 지시대명사 these의 수식을 받아 한정성을 띄고 있고 행위자 'itinerant scribes'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 총칭명사로서 부정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피동작주인 한정명사(구)가 행위자인 비한정 명사(구)보다 위계성이 높아 수동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44) *The document was signed by Raoul Wallenberg.* <자료1, P. 546>

(44)의 문장에서 피동작주 'the document'는 무생물이고 행위자 'Raoul Wallenberg'는 사람이어서 유생성 위계로는 행위자가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위계가 더 높아서 능동문을 구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동문으로 나타나 있다. 이 문장은 화제성 위계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수동문이라고 볼 수 있다. 피동작주 'the document'는 이 문장이 속한 텍스트에서 9번 언급되었고 행위자 'Raoul Wallenberg'는 3번 언급이 되었으므로 피동작주인 'the document'가 더 화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4.2.2 개별성 위계

4.1.3의 표를 보면 개별성 위계를 지키지 않고 나타난 수동문이 모두 11개였다. 이들 수동문은 주어자리에 나타난 피동작주보다 목적어자리에 나

타난 행위자가 개별성 위계에 있어서는 더 상위를 차지하는 문장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11개의 문장들은 만약 개별성 위계에 따른다면 행위자가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능동문을 구성해야함에도 다른 위계의 영향을 받아서 수동문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는 개별성 위계를 여기면서까지 수동문으로 나타나게 만든 여러 가지 위계 요인들을 나타낸 표이다. 개별성 위계를 어긴 11개의 문장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개별성 위계를 어기게 만든 주된 요소를 밝혀낼 수는 있었다.

<표15>

위계 종류	위계성	피동작주 > 행위자
유생성 위계		1 개
인칭 위계		0 개
한정성 위계		0 개
화제성 위계		8 개

위의 표를 보면 개별성 위계를 어긴 11개의 문장을 유생성 위계로 분석해본 결과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위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이 1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개의 문장을 인칭위계와 한정성 위계로 각각 분석한 결과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위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개의 문장을 화제성 위계로 살펴본 결과 11개의 문장 중 8개에 해당하는 수동문이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화제성 위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성 위계를 어기고 수동문으로 나타나 있는 11개의 문장 모두를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위계보다 화제성 위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5) *This savage circus practice* was outlawed in A.D. 326 by
Emperor Constantine. <자료1, p. 148>

(45)에서 피동작주인 'this savage circus practice'는 보통명사이고 행위자인 'Emperor Constantine'은 고유명사이므로 개별성 위계에서는 고유명사인 행위자가 더 위계가 높다. 따라서 위계가 높은 고유명사 'Emperor Constantine'가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능동문을 구성해야함에도 수동문으로 나타난 이유는 화제성 위계와 관련이 있다. 이 수동문이 나타난 텍스트에서 'circus 또는 circus practice'라는 단어는 5번, 'the Emperor Constantine'는 처음 언급된 단어이므로 'circus practice'가 주제성을 갖는다. 이 문장은 개별성 위계보다는 화제성 위계가 수동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2.3 한정성 위계

4.1.4의 표를 보면 한정성 위계를 지키지 않고 나타난 수동문이 모두 13개였다. 이들 수동문은 주어자리에 나타난 피동작주보다 목적어자리에 나타난 행위자가 한정성 위계에 있어서는 더 상위를 차지하는 문장들이다. 이러한 11개의 문장들은 만약 한정성 위계에만 따른다면 행위자가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능동문을 구성해야함에도 다른 위계의 영향을 받아 수동문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한정성 위계를 어기고 수동문으로 나타나게 만든 여러 가지 위계 요인들을 나타낸 표이다.

<표16>

위계 종류	위계성	피동작주 > 행위자
유생성 위계		3 개
인칭 위계		2 개
개별성 위계		2 개
화제성 위계		11 개

위의 표를 보면, 유생성 위계로 한정성 위계를 어긴 13개 문장에 대해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위계를 분석해보면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위계가 높은 문장이 3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칭 위계와 개별성 위계로 한정성 위계를 어긴 13개의 문장을 살펴보면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위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이 각각 2개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의 문장 중에서 유생성 위계나 인칭 위계, 개별성 위계가 영향을 미친 문장이 2개내지 3개 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들 세 가지 위계가 한정성 위계를 어기면서까지 수동문을 형성하게 한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동작주가 행위자보다 위계가 높아서 수동문을 결정하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13개의 문장 중에서 11개의 문장이 해당되는 화제성 위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46) *Women can be lured by the money into ignoring the risks.*

<자료1, p. 356>

(46)에서 피동작주인 ‘women’은 총칭명사로서 비한정 명사이고 행위자인 ‘the money’는 한정 명사이다. 따라서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한정성

위계에 있어서 행위자가 위계가 더 높으므로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능동문을 구성해야하지만 수동문으로 나타난 것은 화제성 위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수동문이 나타난 텍스트에서 ‘women’은 모두 3번 언급되었고 ‘money’는 1번 언급되었으므로 ‘women’이 더 화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제성이 높은 ‘women’이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수동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4.2.4 화제성 위계

4.1.5의 표를 보면 화제성 위계를 지키지 않고 나타난 수동문이 모두 18개였다. 이들 수동문은 주어자리에 나타난 피동작주보다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행위자가 화제성 위계에 있어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문장들이다. 즉, 이 18개의 문장들은 만약 화제성 위계에만 따른다면 행위자가 주어자리를 차지하여 능동문을 구성해야하지만 다른 위계의 영향을 받아 수동문으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화제성 위계를 어기면서까지 수동문으로 나타나게 만든 여러 가지 위계 요인들을 나타낸 표이다.

<표17>

위계 종류	위계성	피동작주 > 행위자
유생성 위계		4 개
인칭 위계		2 개
개별성 위계		5 개
한정성 위계		2 개

<표 17>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표 14, 15, 16>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표 14, 15, 16>은 위계를 여기면서 수동문을 구성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과반수가 넘는 위계 요인이 있었던 반면에, <표 17>은 화제성 위계를 어긴 18개의 문장에 대해 수동문을 구성하게 하는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과반수가 넘는 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14, 15, 16>에서는 유생성 위계, 인칭 위계, 개별성 위계, 한정성 위계를 여기면서 수동문을 구성하게 만든 주된 요소가 화제성 위계라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는 있었지만, 화제성 위계를 여기면서 수동문을 구성하게 만든 주된 위계 요인을 발견해 낼 수는 없었다. 다만 유생성 위계, 인칭 위계, 개별성 위계, 한정성 위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제성 위계를 여기면서 수동문을 구성하게 만든 요인은 위계 요인 외에도 또 다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유생성 위계, 인칭 위계, 개별성 위계, 한정성 위계, 화제성 위계가 수동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수동문이 이러한 위계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위계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다섯 가지 위계 중에서 화제성 위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5장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수동문에 대한 형태·통사론적 연구에서 벗어나 의미·담화론적 입장에서 수동문이 형성되는 결정적 요소, 다시 말하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교체(alternation) 원리를 보다 면밀히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살펴 본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다섯 가지 위계에 근거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수동문을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다섯 가지 위계라는 것은 본 논문의 앞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생성 위계, 인칭 위계, 개별성 위계, 한정성 위계, 화제성 위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위계에 근거하여 수동문의 피동작주와 행위자에 대한 위계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수동문의 피동작주는 행위자보다 유생성 위계, 인칭 위계, 개별성 위계, 한정성 위계, 화제성 위계라는 다섯 가지 위계성에 있어서 대체로 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생성 위계 68%, 인칭 위계 100%, 개별성 위계 89%, 한정성 위계 81%, 화제성 위계 90%). 이러한 결과는 피동작주와 행위자 사이의 위계성의 차이가 수동문 결정에 요인이 되어 위계가 높은 피동작주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여서 수동문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인칭 위계(100%)와 화제성 위계(90%)는 수동문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섯 가지 위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수동문은 대체로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다섯 가지 위계성의 패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생성 위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피동작주는 다른 위계(인칭, 개별성, 한정성, 화제성)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거나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섯 가지 위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다른 위계보다는 화제성 위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수동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칭 위계는 위계가 명확히 차이가 나는 피동작주와 행위자를 가진 수동문 결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담화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동문장의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인칭위계는 모두 위계가 동일한 3인칭인 경우가 전체 200개의 문장 중 82%(163개)에 해당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동문 결정의 판단기준으로는 인칭 위계가 화제성 위계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영어 교육적 측면과 관련지어 볼 때, 기존의 기계적인 능·수동문 전환 교육을 탈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본 논문을 통해 수동구문이 단순히 능동구문으로부터 기계적인 변형 규칙에 의해 생성되어 나타나는 구문이 아니라 실제 발화의 문맥 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의 작용을 받아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여러 가지 위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화제성 위계(요인)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동태 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학생들에 대한 현재의 단일 문장 단위의 구조 변형 위주의 수동문 교육에서 한걸음 나아가 담화 단위를 고려한 수동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수동문이 선택되는 여러 요인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소영. 2002. 「한영 지시 표현의 비교분석: 유생성 부호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신계성. 1987. 「화제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이란화. 1998. 「수동구문의 기능과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Anderson, S. R. and Keenan E. L. 1985. "Dexis". In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3: Grammatical Categories and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allace L. 1976. "Givenness, Contrastive, Definiteness, Subject, Topics and Point of View". In Li, Charles N.(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Foley, W. A. and Van Valin, Jr. R. D. 1985. "Information Packaging in the Clause". In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Clause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wler, R. 1977. *Linguistic and the Novel*. London: Routledge.
- Givó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83a.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n Introduction". In Givón, T(ed.), 5-41,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Amsterdam: John Benjamins

-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4b. "Direct Object and Dative Shifting: Semantic vs. Pragmatic Case" . In Plank F.(ed.), *Objects*. NY: Academic Press.
- _____. 1994.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 2*. Amsterdam: John Benjamins.
- Halliday, M. A. K. and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Lakoff, G. 1987. *Women, Fire,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ch, G. N.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ocke, J. 1694. "Of Identity of Diversity" . In Locke J.,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Reprinted In Perry J.(ed.), *Personal Ident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ühlhäusler, P. and Harre R. 1990. *Pronouns and People*. Oxford: Basil Blackwell.
- Seuren, P. M. 1985. *Discourse Semantics*. Oxford: Basil Blackwell.
-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